

코로나로 성장률 3.7%p ↓ ...산업연 “고용·소비 피해 커”

‘코로나가 韓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발표

‘GDP 충격’ 2009년 세계 금융위기와 비슷

민간 소비 7.4%p · 고용 45만7000명 감소

예술·스포츠·숙박·음식 업종에 피해 집중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3%포인트(p) 낮게 낮추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소비와 고용에는 우리나라 주요 위기 가운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타났다.

산업연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

폭은 3.7%p에 달한다.

산업연구원은 1차 석유위기(1975년), 2차 석유위기(1980년), 외환위기(2009년), 세계 금융위기(2009년) 등 과거 4번의 주요 위기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비교했는데, 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으로 당시 낙폭은 3.9%p로 집계됐다.

이외에 외환위기(-13.1%p), 2차 석유위기(-12.3%p), 1차 석유위기(-2.6%p) 순으로 집계됐다.

GDP 구성 항목별로는 지난해 민간 소비가 7.4%p 하락하면서 코로나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는 외환위기(-19.7%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비 침체에 해당한다. 2차 석유위기(-7.4%p), 세계 금융위기(-3.2%p), 1차 석유위기(-2.7%p) 당시에는 이보다 작았다.

고용 감소 폭은 약 45만7000명이다. 민간소비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151만2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이어 2차 석유위기(31만6000명), 세계 금융위기(31만1000명), 1차 석유위기(22만2000명) 순이다.

보고서는 “GDP 성장률은 2020년 2분기 저점을 거친 이후 회복되는 추세이나 부문별 회복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제조업과 수출은 이미 위기 전 추세를 회복했지만 고용이나 민

간 소비, 서비스 생산은 아직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별로 충격의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특히,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전례 없는 수준의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일부 코로나 특수 업종은 오히려 호황기를 맞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A)과 지난해 성장률(B) 간의 차이(B-A)를 계산해보면 예술·스포츠(-29.5%p), 숙박·음식(-18.7%p), 운수업(-17.6%p)은 침체를 겪었

다. 반대로 인터넷 쇼핑(11.7%p), 바이오(8.6%p), 반도체(4.9%p) 업종의 성

장률은 큰 폭으로 뛰었다.

이에 코로나19 충격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편중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정책을 통해 이들 피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덜어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 관계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 정책 간 유기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신세계백화점, 화훼농가 돕기 프로젝트 ‘블라썸 데이’

신세계백화점이 화훼농가 돕기 프로젝트 ‘블라썸 데이’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가 힘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로즈데이)과 21일(부부의 날) 등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꽃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이 화훼농가 돕기 프로젝트 ‘블라썸 데이’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가 힘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로즈데이)과 21일(부부의 날) 등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꽃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식품·외식업계, 라이브 커머스로 판로 모색한다

모바일 비중 증가로 관련 플랫폼서 판매 개척 나서

라방서 고객과 실시간 정보 교류...접점 확대 효과 ↑



식품·외식업계의 라이브 커머스(모바일 동영상 생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 마케팅이 한창이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모바일 비중이 증가하자 관련 플랫폼을 통한 판매 개척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파리바게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카카오키즈가 운영하는 ‘카카오쇼핑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캐릭터 케이크 제품과 부모님을 위한 선물 세트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방송에는 재치있는 입담으로 고공 행진 중인 배제지 기상캐스터와 유려한 진행력으로 유명한 최희 아나운서가 출연해 캐릭터 케이크, 국내 유명 플로리스트 ‘오드리’와 협업한 선물세트 등을 선보였다.

동아오츠카는 지난달 11번가 라이브 방송 ‘라이브11(LIVE 11)’에서 다 이아트 음료 기획전을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는 개그맨 김원효가 출연해 미

다양하게 소개했다. 방송에는 재치있는 입담으로 고공 행진 중인 배제지 기상캐스터와 유려한 진행력으로 유명한 최희 아나운서가 출연해 캐릭터 케이크, 국내 유명 플로리스트 ‘오드리’와 협업한 선물세트 등을 선보였다.

동아오츠카는 지난달 11번가 라이브 방송 ‘라이브11(LIVE 11)’에서 다 이아트 음료 기획전을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는 개그맨 김원효가 출연해 미

네랄 탄산수 라인바사, 나람드사이다,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 등을 소개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3월 국내 맥주 업계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굿즈를 선보였다. 대상은 오비라거 시그니처 캐릭터인 ‘말라베어’ 모습이 담긴 글라스 세트, 아이스 버킷, 혼술 플레이트 세트 등 총 6가지다.

bhc치킨은 지난 4월 ‘배민쇼핑라이브’에 참여했다. bhc치킨은 약 90분간 진행된 ‘bhc 배민 상품권’ 판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적 거래액 2억원을 돌파했다.

bhc가 운영하는 고품격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 창고43도 4월 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2월 출시한 HMR 제품인 ‘창고43 아랑갈국수’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엔제리너스는 4월 말 롯데홈쇼핑 모바일 TV ‘Live(엘라이브)’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라이브 커머스 행보에 동참했다. 방송 품목은 인기 제품인 반미 샌드위치 세트(반미 샌드위치, 아메리카노 S)로 ‘아라비아따 반미 세트’, ‘불고기 반미 세트’, ‘에그마요 반미 세트’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방송 참여를 통해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온택트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 11개월째 올라...상승 폭은 둔화

4월 식량가격지수 120.9p...전월보다 1.7% ↑

설탕 3.9% ↑ ...브라질 헤아화 달러대비 강세

밥상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데 가운데 국제 식량가격지수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상승 폭은 전월보다 둔화했다.

9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18.9p)보다 1.7% 상승한 120.9포인트(p)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 폭은 2월 2.7%, 3월 2.1%, 4월 1.7%로 매달 축소되고 있다.

FAO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한다.

이 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곡물은 125.1p로 3월(123.6p)보

다 1.2% 상승했다. 옥수수는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으며 밀은 세계 생산 전망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 안정세를 보였다.

쌀은 컨테이너 수급 애로 등 물류 제약 및 운송비용 상승에 따라 수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설탕은 3월(96.2p)보다 3.9% 상승한 100.0p로 집계됐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수확 지연과 프랑스 병해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헤아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받았다.

유지류는 162.0p로 3월(159.2p)보다 1.8% 상승했다. 팜유는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 가격이 상승했다. 대

두유와 유채씨유는 국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육류는 3월(100.1p)보다 1.7% 상승한 101.8p로 조사됐다. 쇠고기와 양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사육을 늘리고 가공을 줄이면서 공급량이 감소했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올랐다. 돼지고기는 동아시아 수입량이 많게 유지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가공육은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

유제품은 3월(117.5p)에서 1.2% 오른 118.9p였다. 버터와 치즈는 아시아의 수요가 높아 가격이 올랐다. 탈지분유는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공급이 적어 선적이 지연될 거라는 우려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수입 수요가 높게 나타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지분유는 최근 교역량이 많고 수입 수요가 낮아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최이슬기자

광주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코로나19 이전 수준

지역 취업포털, 구인광고 게재 건수 전년 대비 24.6% ↑

광주 구인시장 지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상거래 활발해지면서 운전·배달 등 일부 특수 직종에 집중되던 구인구직이 음식점 등 자영업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다.

9일 광주·전남 취업포털 사랑방구인구직이 광주지역 구인광고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구인광고 게재건수는 23만1184건으로 전년 동기(18만5557건) 대비 약 24.6%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22만9548건)과 비교 시에는 약 0.7%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충격이 컸던 요리, 미용업, 교육직 등 대면 업종의 구인광고 게재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요리업 구인 게재건수는 4만 2484건으로 전년(3만3328건)대비 약 27.5% 신장했다. 올해 4월(1만4880건)만 비교해도 전년 동기(6802건)대비 약 2배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인력수요가 급감한 미용업 역시 구인시장 불황 속에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미용업종 구인광고 게재건수는 7088건으로 전년 동기(6841건) 대비 3.6%가량 늘었다.

최은희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 “상시 재택근무 도입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상시 재택근무 도입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790명을 대상으로 ‘상시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시 재택근무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중 92.1%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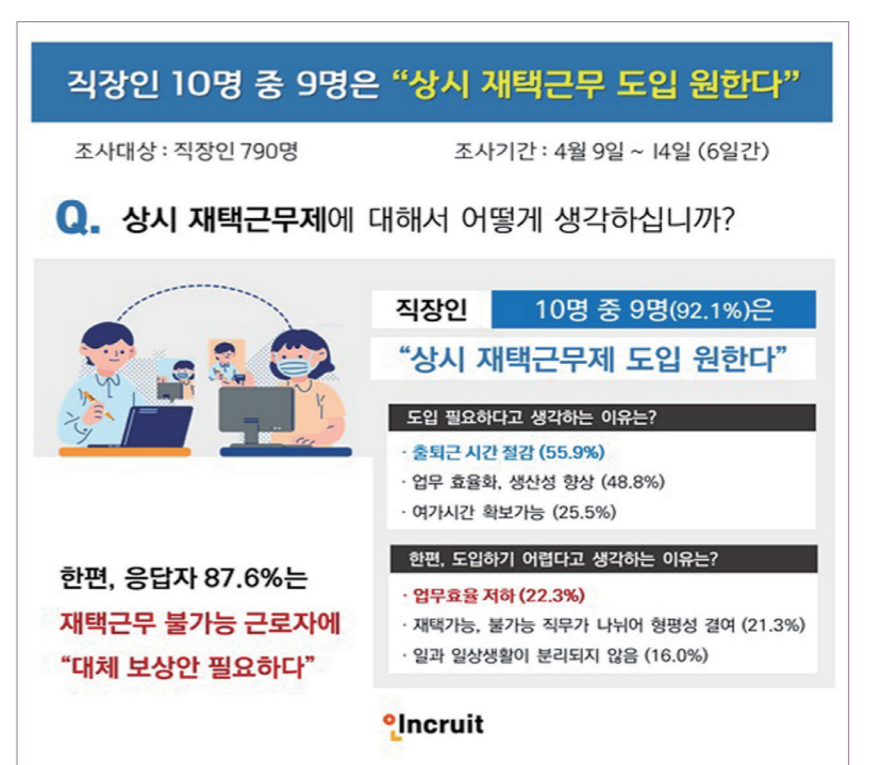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절감’(21.4%), ‘업무효율화, 생산성 향상’(18.6%), ‘여가시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9.6%), ‘근무지 자유로운 선택 가능’(8.8%), ‘육아, 가사 업무병행 가능’(5.8%) 등을 꼽았다.

“현재 재택근무 경험을 했거나 진행 중인 직장인은 전체의 54.2%를 차지했으며 45.8%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제도가 유지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3.6%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23.4%, ‘반반이다’라는 답변은 23.0%로 나타나 재택근무 연장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상시 재택근무제의 도입이 필



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업무시간의 지장이 늘어남’(17.4%), ‘업무효율의 저하’(16.5%), ‘재택근무 의무와 불가능 직무가 나뉘어 형평성 결여’(16.5%),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을 것’(12.4%), ‘재택근무 실행을 위한 조율 자체가 어렵다’(10.7%) 등으로 답했다.

이 밖에 재택근무 적용이 불가한 직군 중사자의 대부분은 ‘절충할 보

상안이 필요하다’(87.6%)고 답해 상대적으로 불만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꼽은 보상안은 ‘대체휴무’(35.5%), ‘연봉인상’(24.5%), ‘유연근무제 확대’(24.2%), ‘교대 재택근무 실시’(13.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2%다.

오유나기자